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7.10원 하락한 1,235.70원에 마감

16일 환율은 전일대비 7.10원 하락한 1,235.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60원 하락한 1,241.20원에 개장했다. 뉴욕증시 반등으로 인한 위험선호를 반영하며 하락 출발한 환율은 오전 중 외국인 역송금 수요 유입에 반등하며 1,24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였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및 자본시장 안정 의지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홍콩증시가 급등하는 등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되자 환율은 점심시간 경 재차 하락 전환하고 낙폭을 확대하며 전일대비 7.10원 하락한 1,235.70원에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 폭은 8.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44.31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41.20	1243.90	1235.00	1235.70	1240.4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51.81	1051.81	1043.14	1043.72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61.09	1365.01	1352.97	1363.37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2	0.4	-0.97	-5.6
결제환율(수입)	0.45	1.16	0.27	-3.37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FOMC 서프라이즈 부재, 위험선호 회복 영향에 하락...1,220원 초반 중심 등락예상

금일 환율은 3월 FOMC 매파 서프라이즈 부재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해소, 위험자산 반등 등 호재를 반영해 겹다운 예상된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고 점도표를 통해 추가적으로 6회 인상을 전망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통화 긴축을 소화할 만큼 견고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르면 5월 양적 긴축 계획이 공개될 수 있으며, 이번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뉴욕증시는 매파 서프라이즈 부재가 저가매수로 이어지며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다. 반면 미 2년 국채금리는 추가 6회 인상 전망에 약 9bp 상승했고, 10년 국채금리도 4bp가량 상승했다. 이에 아시아 신흥국 증시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 추가 상승 여부를 관망하던 수출업체의 추격매도 유입도 환율 하락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유럽 위기 지속 및 결제를 비롯한 저가매수 대기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18.00 ~ 1225.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340.8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2.80원 ↓ ■ 美 다우지수 : 34063.1, +518.76p(+1.5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9.6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37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